

유성룡 필 진시무차 초고
柳成龍筆陳時務劄草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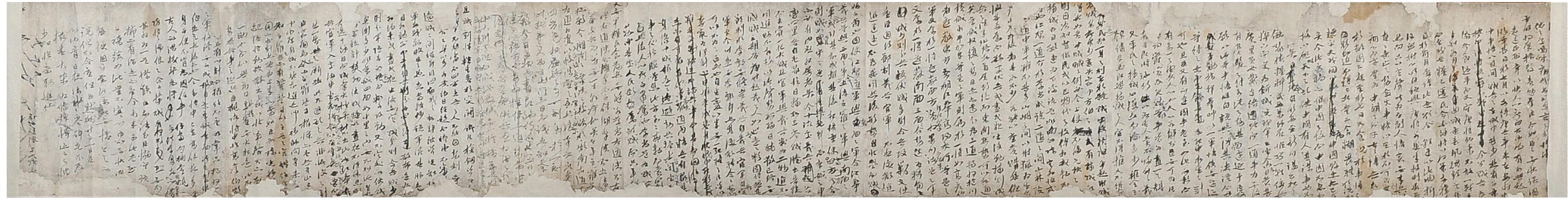
Preliminary Draft for Appeal Concerning Unsettled State Affairs of Urgency

류성룡(柳成龍, 1542 ~ 1607) | 조선 1592년 | 세로 39.2 가로 311.8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111호

Ryu Seong-ryong (柳成龍, 1542 - 1607) | Joseon Dynasty (1592) | L 39.2 W 311.8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1 of Busan Metropolitan City



1592년 선조 25 임진왜란王辰倭亂 발발 당시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 ~ 1607이 그해 11월 평안도 정주定州에서 나라의 시급한 정무政務에 대하여 올린 차자箚子의 초고이다. 내용은 국가의 위난危難을 맞아 민심民心의 규합책, 강원도 산적山尺을 복병으로 활용한 왜적 공격책, 한양漢陽 수복과 호남의 곡식을 활용한 영남 백성의 구제책을 비롯하여 변방의 보고를 즉시 처리해 시사時事에 만전을 기하고 개릴라전을 적극 활용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초안은 1633년 인조 11에 간행된 『서애集』에 그 전문全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창석蒼石 이준李浚의 「서애류선생행장西厓柳先生行狀」과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친撰한 「서애류선생연보西厓柳先生年譜」 등에도 약술된 내용과 함께 상달上達시기와 작성 장소 등이 전해지고 있으나, 초고로서 필삭筆削 부분을 그대로 남기고 있고 내용상 약간의 증신增刪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으로 116행의 반초서로 쓰여 있으며, 규격은 세로 39.2cm, 가로 311.8cm로 가로로 9장의 한지를 연접시킨 권자卷子형태이다. 연접된 각장의 길이는 첫 장 37.4cm, 둘째 장 48.1cm, 셋째 장 48.7cm, 넷째 장 47.5cm, 다섯째 장 12.0cm 여섯째 장 16.8cm, 일

곱째 장 30.7cm, 여덟째 장 19.3cm, 아홉째 장 41.3cm이다. 이중 첫 장은 앞부분이 1행 이상 잘려 나갔으며 아홉째 장은 끝부분의 배면背面 글씨가 잘려 나가 실제로 보다 줄어들었고, 한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연접된 부분 위로 행필行筆의 흔적이 겹쳐져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2장은 길이가 다른 장들에 비해 좁고 3cm 전후의 결승 간격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질에 전후의 묵적과 다르게 갈필渴筆로 되어 있어 가필보정加筆補整에 따라 다시 써 이은 것으로 보인다.

A preliminary draft for an appeal submitted by Ryu Seong-ryong (pen name: Seoae; 1542 - 1607) from Jeongju, Pyeongan-do Province, in the 11th lunar month of the 25th year of King Seonjo's reign¹⁵⁹² at the outset of the Japanese invasion led by Toyotomi Hideyoshi, concerning unsettled state affairs of urgency.